

대사 속, 숨은 문제

# 방송 드라마 들여다보기

손은진 · 조혜전 | 대안가족보건복지협회 모니터

방송 드라마를 보면 여전히 불쑥불쑥 던져지는 대사들 속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드라마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문제를 갖는다.

새로운 시각으로 방송 드라마를 꼼꼼히 살펴보자.

## MBC-TV<회전목마> (2004.1.3)

수형모 : “아, 그리고 은교는 결혼 뒤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하지 않겠니?”

는 시어머니가 합방일을 지정해 줘.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첫 손자를 얻었다고 기뻐함.

## MBC-TV <천생연분> (2004.1.14)

종희 : “그럼 자기는 여자가 일하는 게 싫어?”  
석구 :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 아니면 난 여자가 집에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 MBC-TV <성녀와 마녀> (2004.1.24)

하란모 : “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애가? 너 지나가는 남자들 붙잡고 물어봐!  
바람 한두 번 안 핀 남자 얼마나 있는지, 여자들이 몰라서 속고, 알면서 속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야.”

## SBS-TV <햇빛 쏟아지다> (2004.2.18)

민호가 은섭을 비웃으며 ; “이것도 아들이라고 빨간 고추 대롱대롱 달고 동네 잔치했을 거 아니야, 그 빨간 고추 딱 떼다가 초고추장 짝 찍어 먹었을 텐데.”

## KBS-1TV <수목 드라마>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00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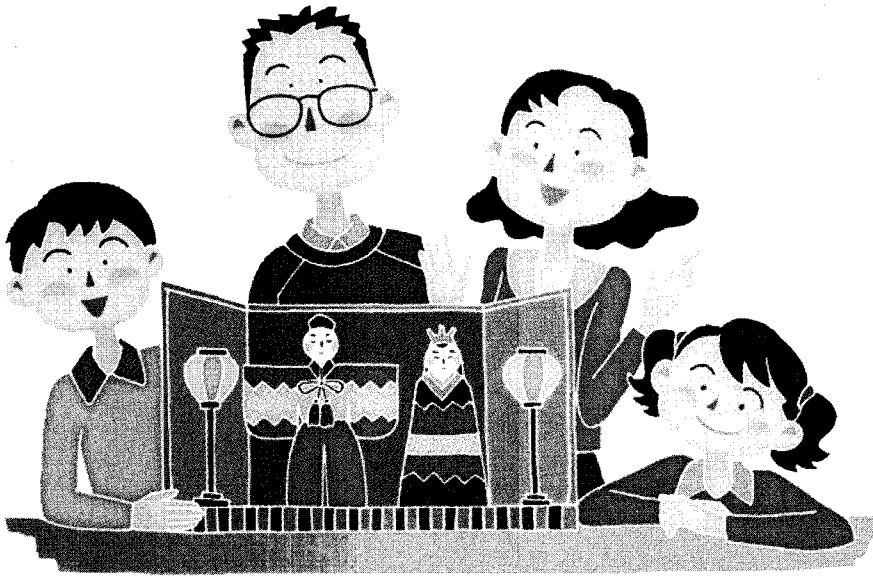
재수에게 아버지가 ; “내가 자식이 많으냐? 너랑 재건이 달랑 둘인데.”

## SBS-TV <솔로몬의 선택> (2004.1.24)

설날 특집 종가집 만며느리 편 ;  
종가집 종부에게 아들 삼형제 낳기를 강요하

재수 : “누나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 “기집애들이 자식이나? 시집가면 그 뿐인데.”



**MBC-TV <천생연분> (2004.2.5)**

종희가 석구에게 시댁 식구들에 대해 불만을 말하자 ;

석구 : “아침부터 그만 하자. 사업이 하루하루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아침부터 여자가 김빠지게.”

**MBC-TV <천생연분> (2004.2.5)**

석구모 :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고 그런 거죠. 자고로 남자가 집안 사람들 신경 쓰다보면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런 집에서 누구 덕에 호강하는 건데.”

방송에 나타난 남아선호 발언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방송에서 성차별적 편견이 담긴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4년 1월부터 2월 까지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TV드라마에서 남아선호를 부추기는 사례가 많이 모니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여성을 매사 수동적이며 의존적으로 묘사하는 여성비하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노골적인 남아선호 발언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흥미위주로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남아선호는 현재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태아 성감별, 인공임신중절의 만연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은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의 작품을 기획하고 방영해 사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 서야 할 것이다.